

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1월 11일 주일 설교입니다.

<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>

로마서 8:29-31 / 새찬송가 310 (통일 410) 아 하나님의 은혜로

1. 참된 믿음의 세 가지 근본조건이 있습니다

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에 대한 지식과 그 정보를 인식(분별하고 판단해서 아는 것)해야 합니다. 둘째는 그 정보를 내 스스로 마음 깊게 인정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인식하고 인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.

2.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

참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랑과 자비함을 신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.

이 믿음은 죽어 마땅한 죄인 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, 말도 안 되는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인한 것입니다(롬5:6-8).

마귀는 처음에 ‘하나님이 없다’ 하다가 ‘넌 죄인이라 죽어 마땅해’라고 정죄하다가 ‘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건 말이 안 된다’고 거짓말 하며 유혹하는데,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감동과 감격은 이런 거짓과 유혹을 물리치게 합니다.

3.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

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‘위하시면’ 우리를 ‘대적’할 그 어떤 영적인 세력이나 죄악의 세력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피조물이고, 이 피조물은 창조주를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(롬8:31).

이 ‘대적’이란 말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앞서 있는 것입니다. 즉 악한 존재는 우리를 대적하기에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반대로 ‘위하신다’는 말은 지금 행동하지 않은 상태여도 문제가 생기면 행동을 개시합니다(요일5:18).

하나님이 우리를 ‘위하신다’는 것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조차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진짜 평안입니다(요14:27).

4. 하나님은 당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

우리는 이 가운데 속한 자들입니다(롬8:29,30),(엡1:3-7). 하나님은 당신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정하시고, 부르시고,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. 우리는 이에 속해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게 참 믿음입니다.

즉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 믿는 것이요,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에 회개하는 것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루어졌기에 이미 받았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(막11:24).

< 적용 & 실천 >

우리의 기도에는 100%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? 혹시 의심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?